

# ‘아직 거짓이 아닌 것’ 과 ‘아직 참이 아닌 것’ 의 만남

글 | 정현이 \_ 한성대학교 회화과 교수 haema@hansung.ac.kr

이 칼럼을 쓰기 위해서 필자가 과학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보니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다. 필자의 과학적 지식은, ‘물은 100℃에서 끓고, 사과가 떨어지는 것은 중력 때문이다’ 라는 수준에서 멈추어 있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보아도 나오는 것이라고는, ‘황산은 위험한 것이고, 수은은 굴러다니는데 먹으면 죽는다’는 정도이니 이 칼럼을 쓰기로 한 것은 역시 큰 실수가 아닐 수 없다. 언젠가 어디선가 박병이 일어나서 시간과 공간과 우주 만물의 씨앗이 생겨났다는 이야기보다는 차라리 곰이 썩과 마늘을 먹고 여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훨씬 더 그럴 듯해 보이고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필자에게 과학은 어찌하면 예술보다 훨씬 더 황홀하고 신비한 세계이다. 그러나, ‘쿨’한 과학자들의 복장이나 지르면서 지면을 낭비할 걱정에 한숨이 나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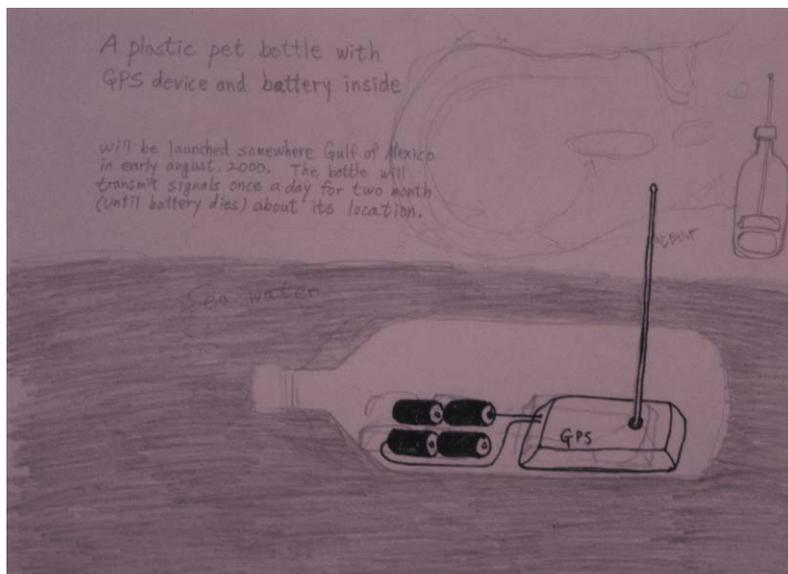
물론 과학적 지식의 미천함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지는 않는다. 기름의 비등점을 몰라도 고구마튀김을 만드는 데 지장 없고, 가속도나 물체의 운동역학을 몰라도 운전하고 돌아다닐 수 있다. 이것은 과학자가 예술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도 자신의 벡타이를 고르거나 거실 소파의 색상과 모양을 선택하는 데 별문제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인 일일 것이다. 그러나 ‘프랙탈’이나 ‘복잡계’와 같은 과학 개념들이 낫선 것만큼이나 ‘개념미술’이나 ‘설치미술’과 같은 현대미술 역시 일반적으로 소비되기에는 이미 지나치게 난해해졌다.

동양의 경우까지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서양에서는 과학과 예술과 종교가 두루뭉술하게 함께 있다가 르네상스 시대를 기점으로 영역의 정체성이 분화되면서 근대기를 거쳐 개별 영역의 특수성이 고도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과연 21세기 시점에서 과학과 예술이, 혹은 과학과 예술과 종교가 서로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으며, 과연 어디쯤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인지 역시 궁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며칠 전 로댕갤러리에서 ‘탈속의 코미디: 박이소 유작전(2006.

3. 10~5. 14)’을 관람하던 중 옆에 있던 한 기자가 “이 작가는 평소 과학에 대해 관심이 많았나 봐요?” 하고 물었다. 생전의 박이소 씨로부터 한번도 과학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기에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되물었더니, “블랙홀이라든가 우주적 공간, 별, 그리고 GPS 시스템이라든가, 뭐 그런 과학적인 것들이 작품에 자주 등장하잖아요” 한다.

마침 앞에 있는 바다 사진과 유리병의 드로잉에 시선이 머물렀다. ‘표류’라는 부제가 붙은 이 프로젝트는 “어떤 사람이 너무나도 소식을 전하고 싶은 사람을 향해 유리병에 편지를 넣어서 바다에 던졌는데 그 병이 바다를 떠다니다가 마침내 기적적으로 소식을 전하고 싶어 했던 사람에게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단지 유리병 속에 편지 대신 위치 추적 장치를 넣고, 그 병이 바다를 떠다니며 보내오는 신호를 받아 전시장에 준비된 지도에 표시해가며 병의 행로를 추적하는 프로젝트였다. 작가는 유리병이 배터리가 다할 때까지 꽤 긴 시간의 항해를 해줄 것을 기대했으나 멕시코



코만에서 떠나보낸 그 병은 2시간 22분 만에 신호를 중단하고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작가의 작업노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모가 남아 있다:

커뮤니케이션: 원시(병)와 현재(인터넷)

가장 느린 것(병)을 위해 봉사하는 가장 빠른 것(실시간 이미지 전송)

최대한의 소통(위치추적기술)과 소통의 불가능성(병)

미래와 인간 운명의 불확실성



병 또는 우리 삶의 목적 없음

의존성, 힘없음, 혼자 남겨짐, 행방불명

그렇다면 이 작가가 '과학과 예술의 만남' 을 시도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굳이 그렇게 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검은색 공업용 스펀지에 문방구에서 파는 어린이용 스티커 별을 여덟 개 붙여놓은 '북두팔성' 이라든가, 검정색 동그라미를 그려서 의자에 붙여놓은 '블랙홀 의자' ... 이런 것들이 과학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지만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얼기설기 만든 뜰 수 없는 배, 그리고 그 배에 실릴 화물에 해당하는 종이상자들 속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정직성' 을 들으면서, 어쩌면 과학이란 '아직 거짓이 아닌 것'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예술은 '아직 참이 아닌 것' 일까? 작가가 부르는 노래, '정직성' 은 빌리 조엘의 노래 'Honesty' 를 작가 스스로 우리말로 직역한 것이다.

"따스함을 찾기는 어렵지 않아, 그냥 사랑하며 살면 돼. 진실을 찾는다면 그건 힘든 일이야. 너무나 찾기 힘든 바로 그것, 정직성. 정말 외로운 그 말, 더러운 세상에서 너무 듣기 힘든 말, 너에게 듣고픈 그 말. 깊은 생각에 잠길 땐 모른 채해줘. 많은 것을 기대하진 않겠어. 내가 진실을 찾을 때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너만 내게 말할 수 있어."

미술관에서, 콘크리트 배와, 작열하는 조명, 그리고 쌓여있는 상자들을 보고,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듣는다. 예전엔 그래도 예술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솔직히 이제는 예술이 뭔지도 잘 모르겠다. 예술이 뭔지 정말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예술에 조금은 가까이 간 것 같은 느낌이 슬며시 찾아오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과학이란 현상과 물질의 실재성을 전제하고, 그 현상과 물질의 법칙을 추구하는 학문으로 알고 있다. 반면 예술은 현상과 물질의 실재성에 대한 회의, 기대, 좌절, 연민, 희망 등을 담은 그 무엇일 것이다. 작가 박이소는 예술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내게 있어 미술작품 제작이란 이미지와 물질을 사용해 모든 것에 대한 나의 끝없는 의심을 정당화하는 과정이 아닐까 한다. 그것은 기존의 의미와 영역들 사이에 펼쳐있는 광대하고도 끝없는 '틈' 을 거꾸로 여행하려는 것과도 같다." ㉔



글쓴이는 이화여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미술사학과를 거쳐, 미국 뉴욕 시립대학원에서 미술이론과 비평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삼성미술문화재단 호암갤러리 선임연구원을 지냈으며, 현재 미술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